

World publishing news



독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재조명

《율리시스》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로 인해 1904년 6월 16일은 불멸의 날이 되었다. 독일 각 도시에 있는 '문학의 집' 등이 제임스 조이스 관련 행사를 마련했으며, 독일의 문학출판사 주어캄프사는 거기에 화답하듯 《율리시스》 주석판을 출판했다. 독일의 우수 일간지들은 '블룸즈데이' (《율리시스》의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에서 따온 것으로 제임스 조이스를 기념하는 날)를 맞이하여 《율리시스》를 재조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독일의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뮌헨, 쾰른, 슈투트가르트,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의 문학의 집은 《율리시스》와 관련한 토론회, 낭독회,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제임스 조이스의 팬들을 만족시켰다. 자세한 프로그램을 www.literaturhaeus-er.net을 통해 볼 수 있다.

독일 평화의 상 수상자로 '페터 에스터하지' 선정

헝가리 작가 페터 에스터하지가 독일 서적상협회가 수여하는 '평화의 상'을 수상했다. 평화의 상 수상식은 2004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중인 10월 10일, 파울스키르헤(바울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본상에는 1만5,000유로의 상금이 주어진다.

페터 에스터하지는 테러와 폭력으로 인한 인간 파괴와 그 재기를 슬픔과 아이러니로 묘사해 주목받았다. 《하모니아 챌레스티스(순결한 조화)》와 그 속편에서 그는 인간의 원죄를 회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시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비극을 묘사하여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게 한 것이 인상적이다. 평화의 상 수상을 계기로 에스터하지는 고향 헝가리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새로운 위치를 갖게 되었다.

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책의 날'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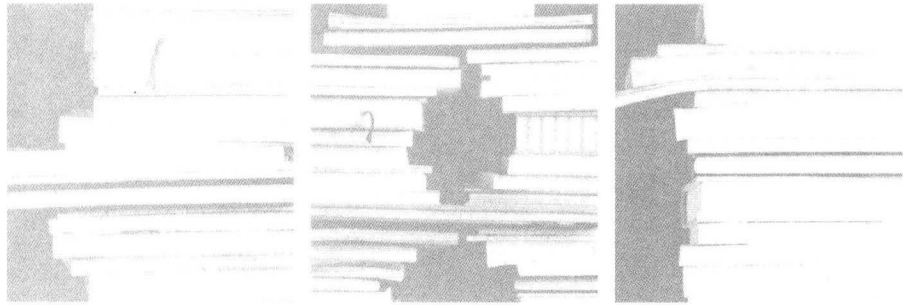
영국은 2005년 '세계 책의 날' 마케팅 전략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업서를 제작하고 있다. 이 마케팅 전략은 머스트즈Mustoes라는 광고대행사가 개발한 것으로, 책 추천 메시지가 담긴 업서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서점, 도서관 및 기타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면은 현재 디자인 작업중이며, 뒷면은 "~로부터" "~에게", 그리고 "~이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업서는 초등학교생 및 10대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될 계획이다.

세계 책의 날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캠페인은 하퍼콜린즈 그룹 판매부장인 존 본드 씨가 책임을 맡고 있다. 캠페인 업서는 무료로 배포되며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는 한편, 핸드폰과 인터넷 서점을 위한 전자업서도 제작, 제공될 예정이다.

해리포터 작가 J. K. 롤링, 웹사이트 개설

해리포터의 작가 J. K. 롤링이 자신의 팬들에게 '해리포터 시리즈' 다음 편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jkrowling.com으로 해리포터 시리즈 관련 기사, 각종 소문들에 대한 대답,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하는 동안 작가가 기록한 메모들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개설 첫주 만에 1,700여 명의 유저들이 롤링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의 뉴스란을 보면 해리포터 시리즈 6권이 곧 출간될 예정이며, 책의 줄거리를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웹사이트에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사이트는 영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가 뉴욕에서 첫 시사회를 가진 날 개설되었다.

프랑스, 도서수출 감소

국내 도서판매에 증가세를 보인 프랑스의 도서수출이 2003년 0.5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도서수출의 감소이유로 유료화의 가치 절상과 불어의 쇠퇴를 들었다. 프랑스 출판계의 연간 판매액은 6억3,000만 유로(2002년 6억2,680만 유로). 프랑스 도서수출은 2000년에 9.2퍼센트, 2001년에 2.4퍼센트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매년 1퍼센트씩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감소추세는 북미, 중남미에서 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20퍼센트, 캐나다에서는 8.2퍼센트 감소하여 프랑스 출판사는 총 1,300만 유로의 손실을 보았다. 중남미 감소의 주요 원인은 본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도서를 세계에서 23번째 규모로 수입하던 브라질이 32위로 물러나는 등 중남미의 프랑스 도서판매는 9.2퍼센트(640만 유로) 감소했다.

프랑스 도서의 주요수입국인 스위스와 벨기에에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스위스에서 2.7퍼센트 감소한 반면 벨기에에서는 1.5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유럽 기타 지역에서 프랑스 도서수출은 상황이 상이하다. 독일 및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국, 북아일랜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국회 저작권법 강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해 러시아 국회(두마)는 지난 5월 중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들이 반영될 것이다.

저작물들은 작가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받았으나 WTO의 요구에 따라 이제 작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인터넷상의 저작권도 동시에 포함되었다. 음반과 기타 상품들도 출판과 함께 러시아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적 요구에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들은 여전히 국가검열과 같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예카테린부르크, 크라스토타르스크, 이르쿠츠크, 사마라에서의 단속이었는데, 공무원들은 마약이 언급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을 서점에서 압수 조치, 그것을 판매한 서점들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푸틴 대통령이 해당 부처 관료들에게 마약 마피아와의 전쟁을 요구하고 정보공유 및 예방적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문승현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